



상악 전치부 결손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증례

강 종 윤*, 조 혜 원, 김 유 리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전치부 치아의 결손시 과거에는 고정성 국소의 치가 주된 치료 방법이었으나, 인접치의 삭제 가공치의 비 심미성등과 다수치 결손시 지대치 선정 등의 문제로 현재는 임플란트가 환자와 치과 의사들에게 선택 받게 되었다. 특히 상악 전치부는 안면 심미에서 중요한 부위이며,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시에 골유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더라도 환자가 만족할 만한 심미성을 얻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치료라고 볼 수는 없다. 여러 원인에 의한 전치부 치아 상실은 잔존 치조골의 흡수와 치간 유두의 손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임플란트의 식립만으로 만족할 만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치부 임플란트는 적절한 골조직의 지지를 바탕으로 임플란트의 직경, 식립위치, 식립 각도, 연조직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최적의 심미성을 이룰 수 있다.

임플란트 식립전, 임플란트 식립시나 조직치유 기간동안, 이차수술시, 유지기간동안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처치하는 가장 적합한 정해진 시기는 없다. 환자에 맞는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상악 전치부 치아상실 환자에서 임플란트 식립시와 치료기간동안 임시치관을 장착, 조절하여 연조직 형성을 유도하였으며, 연조직의 더 나은 적합성과 심미성을 위해 세라믹 지대주를 사용하였다. 필요한 경우 연조직 이식술을 이용하여 심미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